

■ 고사성어 ⑩



불입호혈 부득호자(不入虎穴 不得虎子)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 새끼를 못 잡는다는 뜻으로 모험을 하지 않고는 큰 일(이익)을 할(얻을) 수 없음의 비유.

후한(後漢) 초기의 장군 반초(班超)는 중국 역사서의 하나인 <한서(漢書)>를 쓴 아버지 반표(班彪), 형 반고(班固), 누이동생 반소(班昭)와는 달리 무인(武人)으로 이름을 떨쳤다.

반초는 후한2대 황제인 명제(明帝) 때(74년) 서쪽 오랑개 나라인 선전국[鄯善國: 누란(樓蘭)]에 사신으로 떠났다. 선전국왕은 반초의 일행 36명을 상객(上客)으로 후대했다. 그런데 어느날, 후대는 박대(漸侍)로 돌변했다.

반초는 궁중에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하고 즉시 부하 장수를 시켜 진상을 알아보라고 했다. 이윽고 부하 장수는 놀라운 소식을 갖고 왔다.

“지금 선전국에는 흉노국(匈奴國)의 사신이 와 있습니다. 게다가 대동한 군사만 해도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흉노는 옛부터 한족(漢族)이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아 침입을 막았을 정도로 영맹(寧猛)한 유목민족이다. 반초는 즉시 일행을 불러 모은 다음 술을 나누며 말했다.

“지금 이곳에는 흉노국의 사신이 1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있다고 한다. 선전국왕은 우리를 다 죽이거나



由江 權承世
·영남미술협회 회장
·유강 서화연구원 원장

흉노국의 사신에게 넘겨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끌려가서 개죽음을 당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싸워야 합니다! “모두들 죽을 각오로 싸우자고 외쳤다. “좋다. 그럼 오늘 밤에 흉노들이 묵고 있는 숙소로 쳐들어가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 새끼를 못 잡는다[不入虎穴不得虎子]’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날 밤 반초 일행은 흉노의 숙소에 불을 지르고 탁치는 대로 죽였다. 이 일을 계기로 선전국이 굴복했음은 물론 인근 50여 오랑개의 나라들도 한나라를 상국(上國)으로 섬기게 되었다.

또 읊었다.

힘은 산을 뚫고 의기는 세상을 뒤흔들
[力拔山兮氣蓋世(역발산헤기개세)]
때는 불리하고 추는 가지 많으나
[時不利兮難不逝(시불리헤추불서)]
추가 가지 많으니 어찌하면 좋은고
[難不逝兮可奈何(추불서헤기奈何)]
우야 우야 그대를 어찌할 거나
[虞兮虞兮奈若何(우헤 우헤내 약하)]

우희도 이별의 슬픔에 목매어 화답했다. 역발산을 자처하는 천하장사 항우의 뺨에는 어느덧 몇 줄기의 눈물이 흘렀다. 좌우에 배석한 장수들이 오열(嗚咽)하는 가운데 우희는 마침내 항우의 보검을 뽑아 찌가슴에 꽂고 자결하고 말았다.

그날 밤, 불과 800여 기(騎)를 이끌고 중포위망을 탈출한 항우는 이른날. 혼자 작군 속으로 뛰어들어 수백 명을 뺨 뒤 강만 건너면 당초 군사를 일으켰던 땅, 강동(江東)으로 갈 수 있는 오강(烏江: 안휘성 내)까지 달려갔다. 그러나 항우는 8000여 강동 자체(子弟)들을 다 잃고 혼자 돌아가는 것이 부끄러워 스스로 목을 찢러 자결하고 말았다(B. C. 202). 그때 그의 나이는 31세였다.

예(禮)- 예를 지켜 法度를 넘지 말아야 함을 알아야 하고
의(儀)- 스스로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함을 알아야 하며
엄(廉)- 恒常 清潔하여 邪惡함을 감추지 말아야 하고
치(恥)- 잘못을 쫓지 않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주책과 吝嗇(인색)만 있고 尊敬과 名譽가 없는 늙음은 無關心과 冷笑(냉소)의 손가락질만 있을 뿐이다.
疏外(소외)되고 외롭다는 푸념도 어찌면 우리들 스스로 자초한 것 아닌가
老慾과 老貪 버리고 맑고 밝은 마음일 때 우리는 尊敬받고 우러러 보는 元老가 될 수 있다. 고운 心性, 바른 教養으로 살아야 멋진 아버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淸庵 權黼彰



사면초가(四面楚歌)

사면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란 뜻. 곧 ①사방 빈틈없이 적에게 포위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태. ②주위에 반대자 또는 적이 많아 고립되어 있는 처지. ③사방으로부터 비난받음의 비유.

진(秦)나라를 무너뜨린 초패왕(楚霸王) 항우(項羽)와 한왕(漢王) 유방(劉邦)은 홍구[鴻溝: 하남성(河南省)의 가로하(賈魯河)]를 경계로 전하를 양분, 강화하고 5년간에 걸친 패권(霸權) 다툼을 멈췄다(B.C.203). 함과 기(氣)에만 의존하다가 범증(范增) 같은 유일한 모신(謀臣)까지 잃고 밀리기 시작한 항우의 휴전제의를 유방이 받아들인 것이다.

항우는 곧 초나라의 도읍인 팽성[彭城: 서주(徐州)]을 향해 철군(撤軍) 길에 올랐으나 서쪽의 한중[漢中: 섬서성(陝西)의 한강(漢江) 북안의 땅]으로 철수하려던 유방은 참모 장량(張良)·진평(陳平)의 진언에 따라 말머리를 돌려 항우를 추격했다. 이윽고

해하[垓下 :안휘성(安徽省) 내]에서 한신(韓信)이 지휘하는 한나라 대군에 겹겹이 포위된 초나라 진영(陣營)은 군사가 격감한데다가 군량마저 떨어져 사기가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한밤중에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 [四面楚歌]’ 소리가 들려오니 말이다. 초나라 군사들은 그리운 고향 노랫소리에 눈물을 흘리며 다투어 도망쳤다. 항복한 초나라 군사들로 하여금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한 장량의 심리 작전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항우는 잠짝 놀라서 외치듯 말했다.

“아니, 한나라는 벌써 초나라를 다 차지했던 말인가? 어찌 저토록 초나라 사람들이 많은고?”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항우는 결별의 주연을 베풀었다. 항우의 진중에는 우미인(虞美人)이라 불리는 애인 우희(虞姬)와 추(騅)라는 준마(駿馬)가있었다. 항우는 우희가 애처로워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비분강개(悲憤慷慨)하여 시를 지어 읊고

老子는 <道德經>에서 이끄기를

老子는 <道德經>에서 이끄기를 “罪惡 중에 貪慾(탐욕)보다 더 큰 罪惡이 없고 災殃(재앙) 가운데에는 滿足할 줄 모르는 것 보다 더 큰 災殃이 없으며, 허물 중에는 慾望을 채우려는 것 보다 더 큰 허물은 없느니라.”라고 했다.

지족상락(知足常樂)
滿足할 줄 알면 人生이 정말 정말 즐거운데 그놈의 貪慾, 老貪과 老慾이 뭐길래 우리들의 人生 末年을 망치곤 하는가.

보지 않아도 좋은 것 보지 말라고 우리들의 視力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듣지 않아도 좋은 것 듣지 말라고 우리들 聽力도 가물가물 해지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 말

하지 말라고 늙으면 말수가 적어져야 하고 먹지 않아도 좋은 것 먹지 말라고 食慾이 떨어지는 것, 모두가 神의 攝理(섭리) 아니던가. 그래서 人生 일흔 줄에는 恒常 自制와 절제, 모든 일에 지나침이 없어야 하지 않던가!
돈이나 財産, 地位나 名譽 더 慾心 부리지 말고 이제는 다 있고 살면 되고 虛妄한 꿈(夢)이나 못 이룬 한(恨) 이제는 접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다네.
술이나 좋은 飮食(음식)을 즐기는 식탐(食貪)도 成人病의 原因이 될 뿐이다.
하물며 이 나이에 무슨 女子가 있어야 한다면 밝히고 치근거리는 꼬락서니는 불상 사납다.

乙未新春感懷 (을미신춘감회)

(을미년 새봄에 생각함)

每年新歲喜相迎 (매년신세희상영)
光復未完過一生 (광복미완과일생)
雲散南韓豐富地 (운산남한풍부지)
雪飛北域困窮明 (설비북역곤궁명)
興亡自古判天運 (흥망자고판천운)
繁盛于今頌太平 (번성유금송태평)
分斷融和無進陟 (분단융화무진척)
兩邦統合幾時成 (양방통합기시성)

해마다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나
참 광복을 못 이룬 채 평생을 지냈다
구름 걷힌 한국은 넉넉한 곳인데
눈 날리는 북한은 어려움이 분명하다
홍망은 예로부터 하늘이 판가름하니
번성한 지금의 태평함을 기려라
갈라짐의 화합이 잘 나아가지 않으니
두 나라의 통일은 어느 때 이루어지려나

安東權氏樞密公派·叅議公系有懷堂公後孫 36世 善漢 合掌

■ 우강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니힐리즘



니힐리즘(nihilism)은 무(無)를 의미하는 라틴어 니힐(nihil)에서 유래한 것으로, 투르게네프(Ivan Turgenev, 1818-1883)가 그의 작품 「아버지와 아들」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허무주의(虛無主義)로 번역되고 있는데 니힐리즘의 원래의 뜻은 절대적인 진리, 도덕, 가치는 없다는 것이다. 회의주의, 상대주의, 무정부주의도 니힐리즘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투르게네프는 러시아의 명 작가이며 농노(農奴) 제도를 반대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작품을 냈는데 「아버지와 아들(1862)」에서는 니힐리스트인 ‘바자포프’를 등장시켜 부자(父子) 2대의 사상적 대립을 묘사하였다.

니힐리즘은 절망적 니힐리즘과 능동적 니힐리즘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어떠한 주장이나 주의를 무시한 채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며, 후자는 자유로운 인생을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는 것으로 실존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Friedrich Nietzsche 1844-1900)는 니힐리즘의 등장을 예언하고 이를 극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니힐리즘 사상은 19세기 후반 니체, 도스토옙스키 등의 사상에 반영되었고, 20세기에 들어 와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대학 동기생 중 한 분이 김정진(金楨鎭) 형이다. 그는 이미 오래전 저 세상으로 갔는데 많은 일화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는 방사선학(영상의학)의 거목이며 6척 장신의 거구였는데 추구를 비롯하여 모든 스포츠 분야에서 만능선수였다. 전 남의대 의과대학의 학감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후 한양대병원 방사선 과장으로 활약하였고 정년 후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방사선과 의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서울의대 학생시절에는 대한혈당당 학생부장으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고 체포령이 내려자 피신하였다가 8개월 만에 8.15해방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하였는데 학생시절부터 우리 두 사람은 몹시 가까이 지냈다.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시절 그가 니체에 심취했다는 사실이다. 니체는 어느 의미에서 니힐리즘에서 벗어나려는 니힐리스트였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김 형은 니힐리즘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그랬는지 대학예과 시절에 그는 유난히 고독을 선호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예과 시절 우리 급우들은 주말이 되면 무리를 이루어 남한산성을 빈번하게 방문하였는데 많은 경우에 언제 왔는지 혼자서 묵묵하게 지내고 있는 그를 발견하고 기뻐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그는 니힐리즘에 빠졌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연구에서인지 김 형은 니체에 관하여 유난히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앞에서도 적은 바와 같이 니체는 니힐리즘을 부정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래도 니힐리즘 하면 니체를 떠올리게 될 만큼 니체와 니힐리즘은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대학 예과시절의 이야기이니까 요사이와는 거리가 멀다.

니체는 두 가지 오해를 받은 일이 있는데 하나는 그가 니힐리즘의 철학을 유포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치스

사상에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적은 바와같이 니체는 니힐리스트가 아니었고 비판자였다. 오히려 그는 반종교자라고 하는 것이 옳은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데 이세상에서 절대적인 도덕과 진실은 기독교 도덕과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히려 이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금전과 이윤이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니체의 철학은 ‘생(生)의 철학’ 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까지 서구에서 절대가치와 진리는 기독교 도덕이었다. 그런데 니체는 기독교 도덕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치를 믿게 하려는 종교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렇기에 그 도덕은 진짜가 아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니체는 니힐리즘에서 탈출하기 위한 새로운 니힐리즘을 생각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니체의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 및 파시즘과 연결되었다는 설은 그의 누이 때문이었다. 그녀는 대표적인 국수주의자이자 반유대주의자인 바른하르트 피르스터와 결혼했는데, 1889년 피르스터가 자살한 뒤 니체를 피르스터의 이미지로 개조하였다.

그녀는 니체의 작품을 무자비하게 통제하였고 탐욕에 사로잡혀 니체의 버려진 글들을 모아 ‘Der Wille Zur Macht(권력의 의지)(1901)’ 등을 출판하였다. 히틀러에 대한 그녀의 열렬한 지지 때문에 대중은 니체를 독재자 히틀러의 열렬한 지지자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상의 두 가지는 니체를 모함하는 데 빈번하게 활용되었지만 실제로 니체는 그와는 반대되는 생애를 걸었다.

한편, 김정진 형은 후에 독실한 천주교 신자가 되어 천주교 내에서 주요 직책을 맡기도 하였다. 어찌 생각하면 니힐리즘과는 반대되는 인생을 걸은 것이다.

送舊迎新

天道循環斗柄回 자연의 도리는 돌고돌아 부득성이 돌아오니
午年忽去未年來 갑오년이 훌연히 지나가고 을미년이 돌아왔네
多難往事千愁滅 어려움이 많았던 지날일로 온갖 근심 없어지고
過感新禧萬善開 새해의 기쁨 지나치게 느썸 모든 좋은 일이 시작되리라
除夜鐘聲增拍手 제야의 종소리에 박수를 더하고
元朝賀禮共情杯 원조의 하례에 정다운 술잔 함께 하네
列邦順理隨時變 세계의 나라들은 순리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데
南北相和統一催 우리 남북한도 서로 화의하여 통일을 재촉하시다

乙未2015年元朔

東國古典研究院 權相穆 拜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⑫

라일락

▣ 靑南 權寧漢 (안동전통문화연구회장)

향기 높은 꽃으로는 목련, 백합, 장미, 난 등 수없이 많지만, 라일락도 또한 어느 꽃 못지 않게 달콤한 향기가 아주 진한 봄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라일락을 가장 감미롭고 로맨틱한 꽃으로 치고 있습니다. 작은 나팔 모양인 꽃의 생김새로나 그 진한 향기로나 하트 모양을 한 잎의 모양으로 보나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기 높은 라일락은, 한 동네에 한 그루만 있어도 그 동네에 들어서는 사람에게 늘 좋은 향기와 봄 냄새를 물씬 풍겨줍니다.

질이나 역하지 않고, 달콤하나 찬하지 않는 그 향기는 소녀의 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고 강렬한 향기 그러나 자극적이고 독하지 않는 향기, 청량제와도 같이 가슴을 후련하게 해 주는 향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라일락의 특성 때문에 꽃

말도 ‘청춘’ 혹은 ‘젊은 날의 회상’입니다.

젊은 날의 추억은 라일락의 향기만큼이나 달콤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인 이 꽃은 아프가니스탄 월산이나, 우리나라 황해도와 평남·함북의 석회암 지대에도 이와 비슷한 ‘수수꽃다리’라고 하는 꽃이 자생하는데, 꽃 모양이나 잎의 생김새, 향기 등이 모두 라일락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라일락을 우리말로로는 ‘서양 수수꽃다리’라고 하는데, ‘서양수수꽃다리’라고 하니 웬지 촌스럽고 산뜻한 라일락의 낭만이 사라지는듯 합니다.

라일락이라는 말은 영어 이름이고, 프랑스 말로는 ‘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흰빛 리라꽃은 젊은 여성들만 몸에 지닐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굵고, 향도 좋고, 꽃도 잎도 모두 좋아

서 리라꽃은 사람만큼이나 달콤해서 많은 사랑 노래 가사에도 잘 등장합니다. 1960년경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배사베 무쵸’라는 노래 가사

에도 리라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정말로 신비로운 것이며 리라꽃 향기만큼이나 달콤한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름답고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풀 하나도, 들만에 난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라도 좋지 않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운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으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